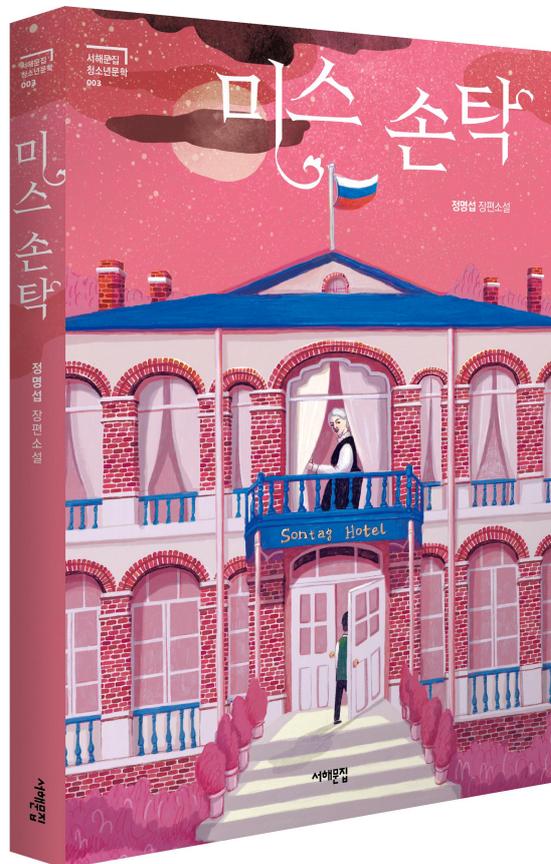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생용

미스 손탁



정명섭 글

서해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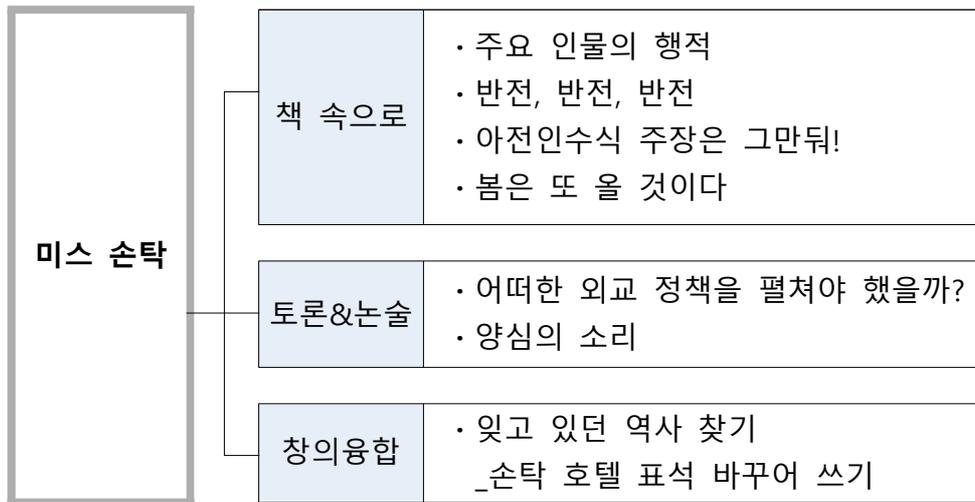
미스 손탁

- *글 : 정명섭
- *출판사 : 서해문집
- *분량 : 240쪽
- *정가 : 11,900원
- *대상 : 중학생

· 책 소개

손탁호텔의 주인, 손탁 여사가 사라졌다!
 구한말, ‘손탁빈관’이라 불리며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의 외교전이 펼쳐졌던 손탁호텔. 호텔의 주인 손탁 여사가 중국 청도에 다녀온다는 편지를 남긴 채 사라진다. 손탁호텔의 보이 배정근은 손탁 여사의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 의심스러운 호텔 손님들을 주시하던 배정근은 손탁호텔 옆 이화학당의 학생 이복림과 함께 손탁 여사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손탁 여사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주요 독후활동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미스 손탁』의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①	(예) 미스 손탁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②	
③	

※ 『미스 손탁』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손탁호텔의 주인, 손탁 여사가 사라졌다!

손탁호텔 보이로 일하게 된, 법어학교 학생 배정근.

호텔 옆 이화학당 학생, 이복림.

그리고 둘을 뒤쫓는 비밀스러운 소년, 황만덕

어느 날 손탁호텔의 주인인 손탁 여사가 사라진다. 남겨진 것은 그녀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하나. 배정근은 이복림의 도움을 받아 사라진 손탁 여사를 찾기 시작한다. 둘은 험버트 선교사와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인 배설을 만나지만,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몰래 따라다니던 전 호텔 보이 황만덕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는데….

2. 『미스 손탁』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글을 ‘팩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팩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

3.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 같나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간추려 쓰기

-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고려하면 더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 이야기의 사건은 시간이나 공간 순서로 요약할 수도 있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도 있어요.

1. 『미스 손탁』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배경	시간	공간
인물	미스 손탁	
	배정근	
	이복림	
	황만덕	
사건		

2. 위의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로그 라인	
전체 줄거리	

(* 로그 라인 : 이야기의 방향을 설명하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된 줄거리)

[독서워크북]

3. 위 2에서 요약한 줄거리를 토대로 이야기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①



②



③



④ 배정근은 이복림에게 영어 통역을 부탁하여 손탁 여사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한다.



⑤



⑥



⑦ 배정근은 이를 지켜보다 황만덕에게 제지를 당한 후, 황만덕의 정체를 알게 되고 오일근의 정체도 알게 된다.



⑧



⑨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주요 인물의 행적

1. 배정근과 이복림이 손탁 여사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인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책 내용을 떠올리며 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름	직업	손탁 여사와의 관계	손탁 여사와 최근에 했던 일
허버트			
배설			
이완용			

2. 1에 제시된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정근과 이복림은 이들이 손탁 여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이 각자 했던 일을 대한제국에 대한 태도와 이들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자서전 형식으로 정리해보세요.

	자서전
허버트	
배설	
이완용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반전, 반전, 반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큰아버지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말끝마다 체통과 체면을 강조하는 이복림의 아버지는 정작 서자였다. 하지만 적자였던 큰아버지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집안에서 별다른 차별이나 냉대를 받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반대하는 집안 어른들에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옛날 전통을 고집할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그때부터 큰아버지는 이복림의 영웅이었다. 관리로 일하는 큰아버지는 늘 나라 걱정을 했다.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배정근은 계단 중간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이복림이 하필이면 이완용의 조카라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이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이 모두 이완용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략> 마차에 올라탄 두 사람이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가는 걸 본 배정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탁 여사를 둘러싼 비밀을 고스란히 친일파의 우두머리인 이완용에게 넘겨주고 만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기 때문이다.

1. 아래 <보기>는 ‘반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 (가)와 (나)에 나타나는 ‘반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보기>

반전 :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급전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가)의 큰아버지

(나)의 이완용



2. 윗글 (나)에서 배정근은 이복림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에는 이에 대한 반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써 보세요.

⇒

3. 이 이야기에는 위에서 정리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반전이 나타납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사람에게 대해 써 보세요.

처음 내용(사람의 첫 인상)

진실(그 사람의 실체)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아전인수식 주장은 그만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동안 우리 일본은 동아시아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서 양이들을 무찔렀소이다.”

분명히 재작년의 러일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본 이토 통감의 얘기가 이어졌다.

“조선은 오랜 세월 동안 당쟁으로 인해 피폐해졌소. 그래서 종주국 청나라의 위협을 받았다가, 부동항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아라사가 호시탐탐 조선을 노렸소. 우리 일본은 군대를 출병시켜서 청과 아라사를 물리쳤고,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소이다. 그러니 일본의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일본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 청나라와 싸웠고, 아라사와도 싸웠지. 그뿐만 아니라 의병들과도 싸우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나 같았으면 타협이고 뭐고 그냥 점령했겠지. 하지만 일본은 그나마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했고, 항실을 존중해 줬단다. 그러니 그들의 뜻을 따르면서 희생을 줄이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을사년의 조약 체결에도 앞장서셨고 말입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만고의 역적이나 다름없었지만 말이다. … (중략) …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판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그 흐름은 한두 명으로는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더 큰 희생을 가져올 뿐이니까 말이다.”

1. 윗글 (가)에서 이토 통감은 일본이 동아시아와 조선을 위해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써 보세요.

2. 윗글 (나)에서 이완용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짖는 내용을 써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봄은 또 올 것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화란(네덜란드)이라는 구라파에 있는 도시다. 그곳에서 제2회 만국평화의회가 열린단다.” <중략>

“원래는 3년 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라사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되었다. 우리 대한제국은 작년에 니고랍 2세에게서 초청장을 받아 놓은 상태였지. 그곳에 가서 만국의 열강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 그리하면 일본도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나) 며칠 후인 7월 21일 자 《대한매일신보》에는 해아로 간 밀사들의 동정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한 기사가 실렸다. 아라사 공사 이범진의 아들인 이위종이 법국어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였다. 기사에는 외국인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흥흥한 소문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7월 20일, 황제 폐하가 황태자에게 양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 “겨울이 오고 있구나.”

손탁의 얘기를 들은 배정근이 물었다. / “㉠겨울이 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희미하게 미소를 지은 손탁이 대답했다.

“내 고향인 알자스는 프로이센 땅이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프랑스 땅이었지. 그러다가 내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양국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프로이센 땅이 되었다. 역사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견뎌야지. 봄이 올 때까지 말이다.”

1. 윗글 (가)와 (나)를 읽고, 헤이그 밀사 사건을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목적	
방법	
결과	

2. 윗글 (가)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의 비유적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3. 윗글 (다)의 내용을 읽고,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 써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 ①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했을까?

※ 다음 글에서 배정근은 당시 대한제국에게 ‘심판’ 같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줄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배가 강화되어 가는 당시 대한제국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았을지 토론해 보세요.

애기를 주고받는 사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힘껏 쳤다. 하늘 높이 솟은 공은 공터 뒤편 소나무 숲 너머로 사라졌다. 방망이를 내던진 타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1루와 2루를 거쳐 3루로 달려갔다. 투수는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뒤쪽에 서 있던 검은 옷의 외국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거리 주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이 덧붙였다.

“저 사람은 심판이란다. 야구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공과 타자가 1루에 비슷하게 도착했을 때 죽는지 사는지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지.”

노인의 얘기를 들은 배정근이 중얼거렸다.

“우리에게도 저런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남에게 기대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지 않단다. 힘들어도 우리 손으로 해내야지. 그래,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어디서 왔느냐?”

일제 침략 시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이었어야 할까?

다른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근거 :

외국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거 :



독서 후 토론&논술_ ② 양심의 소리

1. 다음 글의 곰보처럼 공동체의 기밀을 유출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일명 ‘내부 고발’이라 불리는 행위인데요. ‘내부 고발’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어보세요.

“큰소리치지 말고 저쪽으로 가. 어서.”

인상을 쓴 곰보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배정근은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 “설마 너도?”

“첩자냐고? 아니, 돈을 받기로 제안을 받았고, 그걸 승낙한 것뿐이야. 제국익문사나 통감부는 별 관심 없어. 내 목적은 오직 돈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왜놈의 첩자 노릇을 할 수 있어?”

“못 할 건 뭘데? 대신부터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안달인데 말이야.”

⇒

2. 다음 글에서 이복림이 말한 ‘부끄러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적어보세요.

“큰아버지가 여기랑 이화학당에 관심이 많더라고. 나한테 이것저것 캐물었는데 자칫하다가 첩자 노릇을 할 것 같았어. 내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말만 잘 들으면 미리견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왜 입을 다문 거야?”

“누구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외국인들조차 애를 쓰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고맙고 미안하다.”

울컥한 배정근의 말에 이복림이 희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



독서 후 창의융합_ 잊고 있던 역사 찾기

※ 다음은 지금은 흔적만 남은 손탁호텔 터의 표석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표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바꾸어 써 보세요.
(광고문의 형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손탁호텔 터
한말에 러시아에서 온 손탁(孫澤, Miss Sontag)이 호텔을
을 건립, 내외국인의 사교장으로 쓰던 곳

<보기>

흔히 ‘손탁빈관(賓館)’으로 불렸으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받던 손탁이라는 외국인이 고종에게서 하사받은 땅에 지은 호텔이다. 처음에 손탁은 고종에게서 하사받은 한옥 저택의 실내 인테리어를 서양식으로 장식하여 서양 외교 사절들의 사교장으로 활용하였다. 후에 고종은 아관파천 때 도움을 준 손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서양식 벽돌 건물을 지어주었다. 이것을 호텔식으로 개조하였는데, 이것이 진정한 손탁호텔이라고 할 수 있다. 손탁호텔에는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도 이용했다. 이토 히로부미도 이 호텔에 투숙하여 조선의 대신들을 초청하여 회유하고 협박했다. 배일운동의 중심지였던 손탁호텔이 을사조약을 체결토록 하는 일제 강점의 현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도서명 : 미스 손탁>

출판사 : 서해문집

■ 독서 전

1. (예시답안)

- 앞표지에 백발의 여성은 호텔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 호텔 지붕 위 내걸린 러시아 국기는 미스 손탁의 국적을 나타내는 것일까? 등

2. (예시답안)

- 실제 역사와 혼동할 수 있어서 즐겨 읽지는 않는다.
- 실제 사건과 인물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상상의 요소가 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 (예시답안)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후, 국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손탁 여사라는 사람을 찾는 탐정 이야기를 다룰 것 같다.

■ 독서 중

1. (예시답안)

배경	시간	대한제국	공간	경성, 정동, 손탁호텔
인물	미스 손탁	황실의 서양전례관으로 황제와 외교적 인물들을 연결해준다.		
	배정근	손탁호텔의 보이. 손탁 여사의 실종 미스터리를 해결하려 한다.		
	이복림	이화학당 학생. 영어 통역 능력이 있어 정근과 함께 손탁 여사의 실종 미스터리를 해결하려 한다.		
	황만덕	본명은 이태환. 손탁호텔의 보이로 일하다가 정근을 모함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쫓겨났다. 정근을 미행하며 친일파인 줄 알았으나, 제국익문사 소년 정탐대 소속 요원이었다.		
사건	미스 손탁 실종 사건과 헤이그 특사 파견			

[예시답안과 가이드]

2. (예시답안)

로그 라인	미스 손탁 실종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손탁호텔의 보이 배정근과 이화학당의 학생 이복림의 모험
전체 줄거리	어느 날, 배정근이 취직한 호텔의 주인 손탁 여사가 중국 청도에 다녀온다는 편지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 평소답지 않은 손탁 여사의 행동에 의문을 느낀 배정근은 의심스러운 호텔 손님들을 주시하며 이화학당의 학생 이복림과 함께 손탁 여사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던 배정근은 손탁 여사와 호텔 투숙객 오일근(이준)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을 도와준다. 결국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은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만국에 알렸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애통함에 순국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뜻을 이어 받은 사람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한다.

3. (예시답안)

- ① 손탁호텔에서 이토 통감이 주최하는 연회가 열린다.
- ② 이틀 후, 손탁 여사가 사라진다.
- ③ 배정근은 손탁 여사의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한다.
- ④ 배정근은 이복림에게 영어 통역을 부탁하여 손탁 여사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한다.
- ⑤ 배정근은 탐문 중에 배정근을 모함하다가 쫓겨난 황만덕에게 미행을 당한다.
- ⑥ 배정근은 손탁 호텔의 수상한 손님인 오일규를 미행하던 중 손탁 여사를 발견한다.
- ⑦ 배정근은 이를 지켜보다 황만덕에게 제지를 당한 후, 황만덕의 정체를 알게 되고 오일근의 정체도 알게 된다.
- ⑧ 배정근은 제국익문사 소년 정탐대인 황만덕과 함께 작전을 짜서 이완용의 첩자들을 물리친다.
- ⑨ 손탁 여사가 손탁호텔로 돌아와서 황제의 밀서를 무사히 오일규에게 전달한다.

■ 독서 후

◎ 책 속으로_ ① 주요 인물의 행적

1.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이름	직업	손탁 여사와의 관계	손탁 여사와 최근에 했던 일
헐버트	외국인 선교사	지인	외세에 퍽박당한 사람들의 일을 황제에게 고해 달라고 손탁 여사에게 부탁함
배설	대한매일신보 사장	호텔의 손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황실의 후원금을 손탁 여사를 통해 전달받음
이완용	참정대신	호텔의 손님	황제와 외교 인사들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손탁 여사를 반대함

2. (예시답안)

	자서전
헐버트	그 당시에 황제는 나에게 대한제국의 사정을 알리는 밀서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황제의 간곡한 요청에 나는 미국으로 가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담은 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일 때문에 일제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고 황제를 만나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나 나에게 ‘총칼은 없지만 신과 정의의 힘으로’ 대한제국의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였고, 손탁 여사를 통해 황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배설	나는 일본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특파원으로 대한제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 편을 드는 신문사의 뜻에 반하는 기사를 쓰다 잘린 뒤, 코리아데일리뉴스라는 영자신문을 창간하였다. 한글 신문이 필요한 듯 싶어 대한매일신보를 차려 대한제국의 현실을 알리는 기사를 썼는데, 일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비밀리에 황실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자면 그 뒤에는 손탁 여사의 도움이 있었다.
이완용	나는 대한제국의 참정대신으로, 어차피 일본에게 넘어갈 나라를 제값 받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흥선대원군의 세력이었으나, 명성황후의 세력과 손을 잡았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개화 세력이 되었다가 친미 세력, 이후 다시 친일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뿐이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융통성 있는 대처 때문에 대한제국은 그나마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나의 뜻을 거스르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돕는 외교 인사들과 황실의 연결 고리가 되었던 손탁 여사는 눈엣가시였고,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마침내 손탁 여사를 황실에서 떼어낼 수 있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책 속으로_ ② 반전, 반전, 반전

1. (예시답안)

(가)의 큰아버지	⇒	(나)의 이완용
관리로 일하며 늘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으로 이복림의 영웅이었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 먹으려는 친일파의 우두머리이다.

2. (예시답안)

이복림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주겠다고 큰아버지(이완용)의 꾀에도 손탁 여사를 둘러싼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3. (예시답안)

처음 내용(사람의 첫 인상)	⇒	진실(그 사람의 실제)
황만덕은 손탁호텔의 보어로 저승사자가 별명이며 악랄하고 흑독하다.		실제 이름은 이태환으로 제국익문사 소년 정탐대 요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 책 속으로_ ③ 아전인수식 주장은 그만둬!

1. (예시답안)

동아시아를 지키려는 버팀목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싸운 것뿐이다. 청나라와 러시아 모두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그 나라들과 싸워서 일제가 승리하였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조선에 군대를 두고 있나?

2. (예시답안)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황실을 존중해 주는 척한 것은 처음부터 황실을 없애버리면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서였지, 진심으로 존중해서가 아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고, 혼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나라와 백성을 팔아 버린 것이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책 속으로_ ④ 봄은 또 올 것이다

1. (예시답안)

목적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함
방법	제2회 만국평화의회에 참석하여 호소함
결과	황제가 자신의 자리를 황태자에게 물려주고, 폐위됨

2. (예시답안)

우리나라의 위기 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

3. (예시답안)

손탁 여사와 함께 배정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 결국 일제에 의해 러시아로 추방당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독립군, 임시 정부에 자금을 기부하거나 일제에 침략 당한 우리나라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

◎ 토론&논술_ ①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예시답안)

[다른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근거 : 당시 대한제국은 너무나 약했고, 일본은 이미 너무 깊숙이 침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여러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강대국끼리 견제하도록 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벌어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

[외국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거 :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오히려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 다른 강대국의 땅으로 나뉘어지고 외국끼리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느리더라도 근본적인 힘, 즉 국력을 키우는 방향이 바람직했다.

◎ 토론&논술_ ② 양심의 소리

1. (예시답안)

내부에서 눈을 감으면 밝혀지지 않는 비리들이 있다. 내부 고발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잘못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내부 고발은 필요하다.

2.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이복림이 말한 부끄러움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팔아버리는 부끄러움인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행동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부끄러움으로는 거짓으로 요금을 할인받는 행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른이 일부 있다고 알고 있다. 자기 혼자 이익을 누리겠지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적자가 나면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창의융합_ 잇고 있던 역사 찾기

(예시답안)

일제 강점의 치욕을 오롯이 간직한 곳, 손탁호텔

손탁호텔은 대한제국 고종이 손탁이라는 외국인을 통해 배일운동을 하던 곳이었다. 손탁은 고종을 대신하여 여러 나라 외교 사절과 만나며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역으로 손탁호텔에서 조선의 대신들을 모아 회유하고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제 강점을 이루게 된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매국노들이 함께 있던 곳. 이러한 아이러니한 역사의 장소가 바로 손탁호텔이다.